

사회변화 이끄는 정보화와 사이버스페이스

미래학적 논의에서 사회과학적 분석까지 꾸준히 등장하는 '정보사회론'

백옥인

서울산업대 교수 · 사회학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이 현대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변화의 파도가 산업계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와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접근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에 관한 고전적인 저작들이 꾸준히 번역되고 있고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저작들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화사회에 관한 교과서류의 책으로는 최근 《정보사회의 이해》가 발간되었으며, 기존의 교과서들도 변화하는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여 꾸준히 개정판을 내놓고 있다.

정보사회와 미디어

정보사회에 관한 그간의 논의 추이를 보면 기술 유토피아를 꿈꾸는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플러의 미래학과 조지 길더의 물질폐기론, 네그로폰테의 디지털 존재론 등은 정보사회에 관한 낙관적인 논의를 대표한다. 정보사회론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앨빈 토플러는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거시적-문명사적 틀을 마련한 대표적 저자이다. 토플러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이

현대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정보사회에 관한 고전적인

저작들이 꾸준히 번역되고 있고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저작들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사회의

물질은 우리에게 좀더 본격적인

사회과학적 연구를 요구한다.

는 기존 사회과학의 변동론을 '물질론'으로 각색한 《제3의 물질》에서 '정보혁명'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변화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한편 조지 길더는 그의 저서 《마이크로코즘》에서 디지털 혁명의 기본이 되는 실리콘칩의 인식론적 특징을 '작은 것의 세계'라는 틀로 제시한다.

조지 길더는 양자역학과 이를 응용한 컴퓨터의 등장으로 '물질의 폐기'라는 핵심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정보사회, 새로운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의 논지는 네그로폰테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그로폰테는 《디지털이다》에서 '물질의 폐기'로 대표되는 양자역학 시대의 기본 특징을 아톰(atom)에서 비트(bit)로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정보사회에 관한 고전에 해당하는 이러한 책들과 함께 최근에는 미디어 분야의 고전에 해당하는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가 복간되었으며, 맥루한의 다른 저작들도 번역되고 있다. 맥루한의 저작은 정보화사회의 문화분석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

미디어에 대한 맥루한의 기본적인 관점은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의 부제 '인간의 확장(extensions of man)'에서 잘 드러난다. 맥루한은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으로 본다. 모든 미디어는 인간 감각기관의 확장이다. 그의 책 2부에서는 26개의 미디어가 인간의 정신, 사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맥루한은 미디어를 매우 넓은 맥락에서 사용한다. 맥루한의 눈에는 옷, 말, 전기, 자동차 등이 모두 미디어로 보인다. 미디어를 의사전달의 도구 정도로 파악하는 미디어 내용주의자들의 접근과는 사뭇 다른 접근방식인 것이다.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그의 형식주의적 명제는 미디어에 대한 기존의 내용주의적 접근이 갖는 사회환원론적인 정책론의 차이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특정 미디어가 우리의 인식구조와 감각구성 및 의사전달방식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헤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는 맥루한의 말에 기대면 컴퓨터와 네트는 인간의 두뇌와 신경망의 확장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양적인 확장일 뿐만 아니라 감각과 지각체험을 질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변화된 지각 체험과 인식구조가 사이버스페이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 편역된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와 러쉬코프의 《카오스의 아이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문화적 특징과 성격을 다루고 있다.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문화적 특징과 이데올로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다. 한편 러쉬코프는 현대의 주변문화에서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을 예감한다.

디지털 혁명과 그로 인한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은 새로운 인간형을 낳는다. 산업시대와는 위계적인 질서에 잘 순응하고 경쟁에 용의주도하게 대처하는 표준화된 인간형을

정보사회 관련 서적

책 제목	지은이	옮긴이	출판사
정보사회의 이해	권태환, 조형제		미래미디어
카오스의 아이들	러쉬코프	김성기	민음사
미디어의 이해	맥루한	박정규	박영률 출판사
마이크로코즘	조지 길더	한영환	한국경제신문사
제3의 물질	토플러	이규형	한국경제신문사
디지털이다	네그로폰테	백옥인	박영률출판사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홍성태		문화과학사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한승헌		나남출판
정보사회이론	F 웹스터	조동기	사회비평사
정보사회론	전석호		나남출판
정보지배사회가 오고 있다	데이비드 론펠트	홍석기	자작나무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김영석		나남출판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강상현		한나래
정보정책론	전석호 외		나남출판
컴퓨터혁명의 철학	라키토프	이득재	문예출판사

자기성찰을 위한 자전적 경험

이상옥 산문집 《두견이와 소쩍새》를 읽고

이태동 · 서강대 교수 · 영문학

양산하였다. 규격화된 생산체제는 사람의 인성까지도 표준화하였다. 몰개성과 천편일률, 위계적인 권위구조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이 미덕이었다. 지역성, 계급, 출생지, 출신학교 등이 알게 모르게 인간의 만남과 생활을 틀지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인 젊은 사이버족들은 이러한 기존의 문화와 관습을 완전히 바꿔버릴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첨단기술과 미술을 한데 뒤섞는 카오스의 자식들인 것이다.

정보사회의 쟁점과 전망

정보사회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는 하드웨어에 치중된 기술적 논의나 장미빛 수사로 가득찬 미래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의 뉴미디어에 관한 많은 논의도 최신 정보를 빨리 입수하여 그를 나열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정보사회의 물결은 우리에게 좀더 본격적인 사회과학적 연구를 요구한다.

단순히 '정보화사회'라는 서술적 용어를 사용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를 해명하는 이론적 분석들과 개념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앞으로 전체 경제에서 정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화된 정보의 유통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교역물인 디지털 정보가 유통되는 정보고속도로에서는 물질 상품과는 다른 경제논리가 관철될 것이다. 특히 정보가 상품화되는 속도에 따라 지적 저작권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화시대의 저작권》과 같은 특정한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저작물들이 앞으로 더욱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소통양식과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전자우편, 채팅, 뉴스그룹, 동호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상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가상공동체와 현실 세계의 관련이 무엇인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쌍방향 통신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가져오는 변화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누군가 수필을 정의하기를 “붓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했다. 그러나 T.S. 엘리엇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종류의 글이든 간에 그것이 훌륭한 것이 되려면 무의식적으로 씌어져서는 안되고, 치열한 경험이나 명상을 바탕으로 해서 치밀한 구상을 해야 한다. 엘리엇의 이러한 주장은 이상옥 교수의 산문집 《두견이와 소쩍새》가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산문집은 크게 보아 자서전적인 부분과 구도자적인 명상과 자기수련을 통해서 얻은 형안(炯眼)의 눈으로 관찰한 삶의 아름다움과 진실, 그리고 정직한 삶에서 얻은 은혜로운 축복과 지혜가 담긴 비평적인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이 산문집을 읽게 되면, 삶에 대한 지혜는 물론, 조용히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허식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평범한 삶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며 흔들림 없이 끈게 살아온 탁월한 학자이자 지혜로운 스승의 초상(肖像)은 어느 위인전 못지 않은 진한 감동을 가져다준다.

이상옥 교수는 김천고등학교에 다닐 때, 6·25전쟁으로 피난왔던 서울대 문리대 출신의 뜻있는 수학선생으로부터 깊은 감화를 받아 건축학을 전공하려다가 문리대 영문학 과를 택하게 되는 자긍심 높았던 전말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3년 동안 명문인 서울고등학교 교사로

이 산문집은 평범한

삶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며 흔들림 없이 끈게

살아온 탁월한 학자의

초상이 진한 감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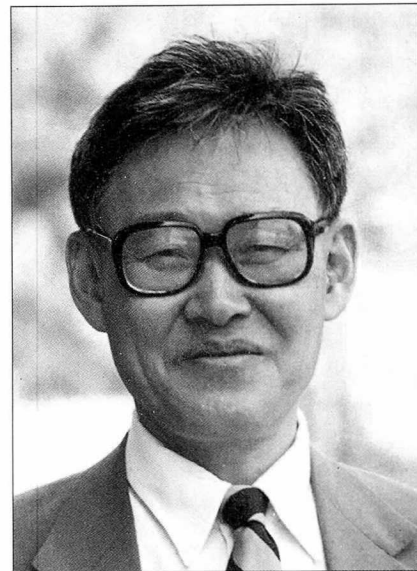
가져다준다. 진실된 경험에서

얻은 삶의 지혜들은

우리에게 삶을 밝고 건강하게

열어주는 '눈뜸과 귀뜸의

글들' 이다.



이태동 교수.

거쳐 미국 유학을 마치고 모교에서 존경받는 교수로서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체험한 것을 다양한 일화로 형상화하고 있다. 잔잔하고 간결한 문체로 씌어 있지만 너무나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읽고 학문에 대한 그의 경건한 자세에 대해 선망과 부끄러움을 함께 느끼게 한다.

더욱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한 생활을 하며 '망중한(忙中閑)'을 '한중망(閑中忙)'이라고 고쳐 부를 정도로 60여년의 성상(星霜) 동안 갈고 닦은 지성의 눈으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현상을 비판하는 글들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균형잡힌 것으로 그의 인품 만큼이나 투명하다. 우리가 <소백산 철쭉보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상옥 교수는 사물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글들은 우리로 하여금 허위의식을 벗게 해서 자기반성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 주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의 글들이 교조적이지 않고 우리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참된 것과 허위적인 것을 철저히 꿰뚫어볼 수 있는 이상옥 교수만이 가진 투철한 학자적인 정신 때문이리라.

그러나 그의 글은 비록 비판적인 지성이 넘치고 있지만, 편견이 없이 솔직담백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억압하기보다는 유연한 친근감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의 산문이 지닌 이러한 친근감은 <자기성찰의 변(辯)>에 실려 있는 여러 편의 글에서 볼 수 있듯 서정성이 짙은 시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시정은 그의 지성에 의해 언제나 절제, 승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독자로서는 감정의 물입없이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 속에서 저자와 함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의 조용한 세계로 초대해 우리를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한 것은 그의 글이 결코 '붓 가는 대로'만 씌어진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이상옥 교수의 산문집 《두견이와 소쩍새》가 제목처럼 우리에게 남다른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속에 가득차 있는 진실된 경험에서 얻은 삶의 지혜들이 우리의 삶을 밝고 건강하게 열어주는 '눈뜸과 귀뜸의 글들'이기 때문이다. ◆

시와시학사/A5신/300면/8000원

